

**자가담바 마테슈와리의 기억의 날 아침 수업에 읽을 다정하고 고결한 말씀.
행복과 슬픔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습니다.**

행복한 삶 또는 슬픈 삶이라는 결과가 자기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반드시 행위가 먼저 행해진 후에 그 결과가 슬픔이나 행복의 형태로 경험됩니다. 이처럼 행복과 슬픔은 행위와 관련됩니다. 카르마는 키스메트 (행운)라 불리지 않습니다. “내 복에 있는 것이 뭐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그들은 슬픔과 행복이 자기의 복대로 온다고 여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신이 그들의 복을 만들어주었거나 누군가 다른 이가 그들의 행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탓에 “내 복에 들어있는 것은 뭐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행운을 만들어주었는지도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신이 행운을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행운이 전부터 이미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그 행운을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 내가 슬픔이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행복이나 슬픔을 만든 이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위였고, 행위를 행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네가 뭘 뿌리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누가 뿌리든 그 사람이 그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기타에도 “영혼이 그 자신의 적이며 또 그의 친구이기도 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은, “나는 너의 적이고, 나는 또 너의 친구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 있는 존재가 바로 그 자신의 적이고 그 자신의 친구이니, 여러분이 우정이나 적대감을 가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존재 그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나 슬픔에 대한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누구라도 슬픔을 가지려 들 이유가 있을까요? 슬픔이 어떤 형태로 오든 그들은 그걸 쫓아버리려 합니다. 싸움이나 전쟁이 벌어지면 그들은 그걸 끝내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불시의 죽음에 직면한 이들이 슬픔을 경험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럴까 의아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심지어는 신을 모욕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불시에 닥친 때 이른 죽음 등, 신이 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질병의 형태로 온 슬픔을 내가 겪을 때, 그것이 신이 하신 일입니까? 모든 싸움과 전쟁 등, 세상에 슬픔이 생긴 이유들, 이 모든 것을 신이 하셨습니까? 오! 신은 슬픔의 제거자, 행복의 공여자라 불립니다. 그런 이유로 슬플 때 그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육신이 병들면 그들은 오, 신이여! 라고 소리쳐 부릅니다. 슬플 때 그들은 오직 그분만 소리쳐 부릅니다. 만일 그분이 슬픔을 끼쳤다면, 슬픔을 끼친 분이 뭘 해야 합당할까요?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슬픔을 끼친 분을 여러분이 기억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슬플 때 그를 기억한다면 그가 그 슬픔을 끼쳤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그가 슬픔을 끼치는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그와 연결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슬픈 이유나, 그것에 책임 있는 이는 다른 누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3자는 없고, 단지 나와 나의 창조자뿐, 그게 전부입니다. 단 둘뿐입니다. 하나는 그의 피조물이며 그의 자녀인 나,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그럼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어쨌든 슬플 때는 마치 신이 내게 슬픔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뜻입니다”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그가 내게 행복을 주는 공여자임을 느낍니다. 행복을 위해 지원을 청할 때 여러분이, 오, 신이여, 체계서 슬픔을 없애주소서! 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오, 신이시여, 긴 수명을 주소서! 라고까지 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그에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까지 청합니다. 그들은 신에게 긴 수명을 달라고 빌고, 슬플 때나 몸이 병들거나 싸움이나 전쟁이 벌어지거나, 또는 무슨 이유로든 평화롭지 못함이 생기면 소리쳐 그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오, 신이시여, 이 사람에게 좋은 지각을 주소서, 라면서 그분께 뭔가 지시를 내려달라고 청합니다. 뭔가 슬픔을 일으키면 그들은 그를 기억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뭔가를 청할 때 그분은 틀림없이 그것을 주는 공여자가 아닙니까? 오직 그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분께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치유책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오 나의 신이시여!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 의미를 알든 모르든, 신은 틀림없이 존재하십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느낌은 반드시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우리들이 기억하는 그분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의 관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슬픔의 제거자인가요, 아니면 그가 주는 행복 때문에 우리들이 그와 연결되나요? 그의 일이 슬픔을 끼치는 일이 아님은 우리의 기억으로 증명됩니다. 만일 그가 우리에게 슬픔을 끼친다면 우리가 왜 그를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슬플 때는 그가 마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양, 신

에 대한 사랑이 특별히 솟아납니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볼 때 우리는 그와 행복의 관계를 가진 것이 분명하고, 슬픔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3의 존재는 없습니다. 단지 나와 그분뿐이니, 필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도구이든, 슬픔 때는 바로 내가 슬픔을 겪습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므로 이것이 얼마나 물지각한지 좀 보세요.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나는 어떤 유형의 슬픔도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내가 만들었으니 참으로 물지각한 (어리석은)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슬픔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틀림없이 뭔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든 나는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먼저 이 지식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와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을 이유와 변명을 참으로 많이도 낸다는 점이지요. 그들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있겠어요? 가정도 돌봐야 하고 이 일 저 일 다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들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계속 지켜보고 또 돌보는데, 그들이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서입니다. 그러나 “내 가정, 내 가족...” 등, 그 모든 형태의 슬픔을 만든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무슨 형태로든 슬픔을 일으켰습니다. 그 경우, 나는 그 모든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뭔가를 만들기 전에 나는 우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것과 내게 슬픔을 일으키는 것, 나는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지, 아니면 그것 안에 행복을 줄 뭔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내게는 전혀 행복이 없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찾아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슬픔의 원인이 뭐든 그 슬픔을 끝낼 치유책이 여기에 주어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세요, 저 가엾은 사람들은 참으로 무지한 반면, 이를 아는 자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정 등을 떠나야겠습니까?”라고 합니다.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토록 큰 슬픔으로 가득한 지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면서도, 이 이해를 얻고 나서도 이해할 시간을 내지 않으니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훈습하고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것은 경험되어야 할 뭔가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실제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희망을 오랫동안 품어 왔는데, 지금 행복의 공여자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그분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졌었는지 얘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잘못인데, 그러나 왜 너희는 슬픔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슬픔의 이유가 된 너희의 행위는 무엇이냐? 그게 뭐냐? 라 하십니다. 와서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듣고서도 저 가련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저 계속하기를 원한다 하니 놀랍습니다. 이것을 마야라고 하죠, 마야가 그들을 완전히 붙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고심하는 대상인 그것, 아버지가 와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수단이 무엇이고 너희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면서 그것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앉아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만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 슬픔의 제거자여, 행복의 공여자여”라고 노래 불러 왔기에 너희의 슬픔을 모두 없애고 너희가 행복을 찾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왔다, 하십니다. 그들이 “오늘은 당신이 슬픔의 공여자, 행복의 제거자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슬픔의 제거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르시기를,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슬픔을 없애려고 왔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슬픔을 없앨 그러한 행동을 행하도록 영감을 고쳐해주겠다, 하십니다. 그저 내가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하며 이런 식으로 슬픔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해라. 나는 너희가 각자 슬픔을 없앨 가르침들을 주고 있으며 그 슬픔은 너희의 것이니 너희는 이 가르침들을 훈습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신에게 호의를 베풀기라도 하는 듯 변명합니다. 일부는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맙소사! 남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주는 등 그 모든 일들, 여러분은 그런 유형의 행위들을 통해 만들어진 계좌에 간혀있고,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슬픔을 일으켰습니다. 한편에서 여러분은 그 슬픔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친히 그 슬픔에서 풀려날 방도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어느 누구의 지각에도 자리 잡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 소유물들, 몸이 곧 마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유로워지리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찾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슬픈 원인은 다른 것입니다. 신이 이르시기를, 나의 이 창조물은 영원한데, 이것은 슬픔의 원인이 아니다. 너희는 5악 (마야)이라 불리는 가위의 것을 취했다, 하십니다. 악덕들은 마야라고 불립니다. 몸은 악덕이 아니고, 세계는 악덕이 아니고, 부나 번영은 악덕이 아닙니다. 악덕은 다른 것인데, 그것 (악덕)들이 온 탓에 그 모든 것이 슬픔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안락함의 그 모든 것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영혼)들에게는 부와 번영이 모두 다 행복해지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지 못한 탓에 그것들은 그들 모두를 슬픔으로 인도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창조한 창조물은 영원한데, 그것은 슬픔의 원인이 아니다”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슬픈 이유다, 라 하십니다. 일부 추가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갔고, 그 이질적인 것들이 바로 마야의 5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부는 신이 그런 것들을 줬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것들을 주지 않았나요? 어쨌든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그것들에다 악덕들을 더해서 모든 걸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신의 자녀들이니 이제는 그것들을 없애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을 찾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여기에 다시 와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여기에 와서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가자마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 이것이 놀랍다고 일컬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속에서 욕구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는 와서 좀 이해하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또는 내가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더 나이든 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을 창조하는 일이 더 늙은 분들에게만 필요할까요? 나이든 이들은 잘못된 사다리를 이제껏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내려오는 이들입니다. 그보다는 사다리를 올라가기 전에 조심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이런 것을 좀 이해한 다음 슬픔의 근본원인을 끝내려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라고 조언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인 신에게서 권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을 그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성취도 역시 그분에게서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이 친히 이르시기를 수백만 중에서 오직 한 손으로 꼽을 소수만이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소한 몇 명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수백만 중에서 소수가 나와서 행운을 만들 것입니다. 앗차.

다정하신 밥다다와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기억과 굿모닝.

축 복: 본래의 나라의 주민이 되어 이 낡은 세상을 낫선 타국이라 여기며 이것 너머에 머물러라. 해외에서 만들어진 물건에는 손조차 대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들은 오직 자기 나라에서 만든 국산품만 써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낡은 세상은 타국이다. 이것을 초월해 머물러라, 즉 낡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그것의 성질이나 산스카르에는 이끌림이 전혀 없게 해라. 본래의 나라의 주민이 되어라. 영혼의식의 형태이며, 너희들의 고귀한 나라, 지고의 거주지의 주민이 되고, 신의 가족이라는 면에서는 너희 자신을 마두반 땅의 주민이라 여기며 그 도취감을 유지해라.

슬로건: 혼돈 (자멜라, 혼란)에 사로잡히지 말고, 만남의 축제마당 (멜라, 행복)에 한결같이 머물러라.

*** 옴 샐티 O M S H A N T I ***